

# 5/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

일본문학이 기록한 3·1운동과 조선인\*

곽형덕



간토대지진 당시 아사쿠사 센소지 부근

**곽형덕(郭炯德)** 명지대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명지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와세다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와 컬럼비아대학 대학원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연구과(EALAC)에서 일본 근현대문학을 수학했다. 저서로 『김사랑과 일제 말 식민지 문학』이 있고, 번역서로는 『무지개 새』, 『돼지의 보복』, 『지평선』,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어군기』, 『아쿠타가와와 중국 기행』, 『긴네무 집』, 『니이가타』,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던 일본 현대문학』, 『김사랑, 작품과 연구 1~5』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https://doi.org/10.29154/LBI.2019.21.128>

## 1. 머리말

두 민족 이상이 뒤얽힌 분쟁과 갈등은 서로 상반된 기억과 기록을 낳는다. 이러한 상충하는 기억은 고유명사에 집약돼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항왜원조-조선정벌, 시베리아출병-시베리아간섭전쟁, 한국전쟁-조선전쟁-항미원조 등에 이르기까지 고유명사를 보면 어느 측의 시각이 담긴 용어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1운동 또한 독립운동(한반도), 그리고 소요사건(일본)으로 불리는 등 양 민족 간의 아득한 간극을 드러내왔다. 일본에서 3.1운동은 공식적으로는 ‘조선만세소요사건’(朝鮮萬歲騷擾事件)<sup>1</sup>으로 규정돼 제국이 해체되기 이전까지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집단기억의 한 조각을 이뤘다.

독립운동과 소요사건이라는 아득한 간극은 이후 벌어진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 당시 조선인학살을 설명하는 중요한 실마리이기도 하다. 알베르 멤미(Albert Memmi)가 밝히고 있듯 인종차별은 차별하는 측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sup>2</sup>을 얻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죄악감은 폭력을 더욱 증폭시킨다. 더구나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당시 조선인들의 독립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공산주의자나 종교지도자들의 지시에 부화뇌동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기에 ‘공포심’은 더욱 배가됐다. 물론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등의 지식인이 조선인의 독립운동에 온정적인 시선을 투사하고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조선의 독립을 실질 정치에서 인정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sup>3</sup>

1 ‘조선만세소요사건’(朝鮮萬歲騷擾事件). 일본에서 3.1운동은 한동안 이렇게 기록되고 기억됐다. 이 용어는 잘못된 정보와 인물에 휘둘린 조선인들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식민 권력과 일본인 ‘대중’(大衆)의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다. 그 기록/기억에 과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패전한 이후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전까지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3.1독립운동을 ‘소요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アルベール・メンミ, 菊地昌実/白井成雄 訳, 『人種差別』, 法政大学出版局, 1996, 4쪽.

3 渡邊一民, 『(他者)としての朝鮮: 文学的考察』, 岩波書店, 7쪽 참조. 요시노 사쿠조의 당시 발언은 이상론적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기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은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과 민족 차별의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시위에 참가한 조선인들을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명명해 ‘선량한 조선인’과 분류하려 했다. 3.1운동 시기에 조선인에게 수적으로 압도당하던 기억은 단순한 공포/동요/불안만이 아니라, 세계대전에서 러시아혁명 등의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타민족을 힘으로 짓누르고 있다는 내면의 ‘죄의식’을 인식하게 했다. 더구나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해 산둥반도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을 시기에 느닷없이 일어난 3.1운동은 실로 곤혹스러운 사태였을 것임이 틀림없다.<sup>4</sup>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의 윤리성이 서구 열강에 의해 공격을 받아 파리강화회의에서 수세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3.1운동은 조선인에게는 패배했으나 일본인을 수로 압도한 기억을, 일본인에게는 진압은 했으나 조선인에게 처음으로 수로 짓눌린 공포와 분노를 야기했다. 이후 조선인의 독립투쟁이 조선 내외부에서 더욱 거세게 전개된 것과, 일본의 조선 지배 정책이 더욱 교묘해진 것은 3.1운동을 떠나서는 설명되기 어렵다. 그만큼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에 크나큰 파문과 연쇄적 저항을 낳은 동인으로 지면에 뿌리를 단단히 내렸다.

이와 같이 3.1운동을 둘러싼 조선인과 일본인의 상반된 집단기억은 민족과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제국주의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혼거(混居)를 낳는다. 혼거는 뒤섞임이다. 조선에서의 혼거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인 속에 식민자인 일본인이 섞여 사는 일이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거주 지구가 구획돼 있더라도 근대 도시에서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그렇기에 각종 제도와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식민자는 피식민자를 제압하지만 그렇더라도 가슴 한편에는 대다수인 그들이 소수인 자신을 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 3.1운동은 이렇게 마음 한편에 불안을 품고 살았던 일본인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공포심을 안긴 사건이기

4 나가타 아카후미, 박환우 역,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조선독립과 미국 1910~1922』, 일조각, 2008; 小野容照, 『朝鮮獨立運動と東アジア 1910~1925』, 思文閣, 2013; 가토 요코,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참조.

도 했다. 특히 본국의 일본인보다 ‘식민지 이주정착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3.1운동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sup>5</sup> 그렇기에 3.1운동은 ‘조선만세소요사건’으로 정의해 진압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공포를 일본인의 기억에 남겼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내지’(内地)에서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내지’에서는 일본인이 압도적인 다수였지만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대할 수 없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내지’에서 조선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활동한 일본인은 3.1운동을 단순히 ‘소요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기억/기록을 이어나간다. 특히 일본인이 남긴 3.1운동과 그 파급에 관련된 문헌은 두 민족의 집단기억을 재현하는 동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은 3.1운동을 둘러싼 조선인과 일본인의 상반된 집단기억을 중심에 놓고 이를 문학적으로 날카롭게 형상화한 일본인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은 이 글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피포위 공포’는 당시 일본인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용어이다. 포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은 칼날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며, 이는 전쟁과 살육이라는 형태로 타민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특히 메이지유신 이후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시베리아간섭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등은 이러한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내침(來侵)에 대한 불안을 외부 침략으로 돌려서 ‘생명선’을 바깥으로 연장하려 했다. 3.1운동이 벌어진 191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의 발발로 구체제(왕정체제와 유럽중심의 제국주의)의 붕괴와 새로운 사상(공산주의)의 확

5 한국 학계에서는 이들을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으로 규정해 부르고 있다. ‘조선에 존재하던 일본인’이라는 뜻인데 식민화 과정 및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를 이 용어가 온전히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방향(식민자)의 이동과 정착을 ‘재조일본인’으로 칭하는 것도 문제적이다. 서구 학계에서는 이들을 ‘Japanese Settler’(Jun Uchida), ‘Japanese Diaspora’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근대 이후 일본인의 타국 이주는 남미 이주 등과 같이 ‘diaspora’로 설명될 수 있는 방식도 있었으나, 아시아로의 이주는 식민 권력을 등에 업고 진행된 입식(入植)이었다. 그런 생각에서 이 글에서는 다소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들을 ‘조선 이주 정착 일본인’ 혹은 ‘식민지 이주 정착 일본인’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산을 불러왔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인구 면에서는 지배자인 동시에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기에 포위될 수 있다는 공포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상존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이민족에 포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식민지 조선에서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인들에게 현실이 됐다.

‘살육의 기억’은 피포위 공포가 살육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3.1운동 당시 일본인은 조선에서 지배자인 동시에 소수자임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선에서 압도적 다수인 조선인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배자인 일본인이 일시적이라고 해도 조선인에게 수적으로 밀렸다는 사실은 조선인에 대한 공포심만이 아니라 불만과 혐오를 낳았다. 간토대지진 당시 많은 조선인이 일본인의 손에 살해된 것은 이러한 공포와 혐오가 살육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본다면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은 3.1운동에서 간토대지진에 이르는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일본인의 조선인 인식의 일단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일본인 작가의 3.1운동에 관한 작품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선인 작가들이 3.1운동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시대의 윤리와 사상을 추구해갔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일본인 작가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응대했다. 조선에서 생활했던 일부 작가들만이 3.1운동을 작품에 담았는데, 이는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을 일본인으로서 성찰하는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들이 남긴 3.1운동과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글을 분석해 일본인의 집단기억이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파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려 한다. 다만 3.1운동의 전개와 의의를 역사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보다는 일본문학 작품 속에 3.1운동에 대한 일본 군중의 기억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6 특히 시베리아간섭전쟁(1918~1922)과 노몬한 전투(1939)는 러시아(소련)와 벌인 무모한 전쟁이다. 일본은 러시아혁명 이후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러시아/소련과 무모한 전쟁을 벌였다.

## 2. 일본 작가들이 바라본 3.1운동

일본문학사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3.1운동과 관련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3.1운동 직후에 창작된 작품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나 나온 작품이 많은 것을 보더라도 1920년대 무렵에 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내지’(內地)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대부분의 작가가 이 문제를 외면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 거주했던 작가나 ‘내지’에서 조선인과 접촉했던 작가가 주로 3.1운동을 다뤘던 것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자면 1919년 그리고 1920년대에 대다수의 일본 작가들은 3.1운동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이 없었다. 체험이 곧 작품화로 이어지는 상수는 아니더라도, 구체적 실감도 없이 조선에서 일어난 3.1운동을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과 관련된 일본문학 작품이 극히 적은 것은 고찰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극단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이는 당시 조선문단의 작가들이 일본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칭다오전투)이나 시베리아간섭전쟁(1918~1922)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sup>7</sup>

그렇기에 3.1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작품을 쓴 일본인 작가 대부분이 조선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1887~1958), 유아사 가쓰에(湯浅克衛, 1910~1982), 나카지마 아쓰시(中島敦, 1909~1942),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 1930~1975), 스미 게이코(角圭子, 1920~2012)가 그들이다. 이 중에서 가지야마 도시유키와 스미 게이코는 3.1운동 이후에 태어나 일본이 패전한 후에 소설을 남겼다. 그 외에 프롤레타리아 작가들 중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 1905~1972)는 3.1운동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까지를 시야에 넣은 작품을 썼다. 히라바

7 일본 작가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나 시베리아간섭전쟁에 관해서는 소수만이 작품화에 성공했다. 이는 문학적 형상화가 대상에 대한 깊은 고찰과 실감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곽형덕, 「1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본문학: 오가와 미메이와 구로시마 덴지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6, 한일군사문화학회, 2018)에서 다룬 적이 있다.

〈표 1〉 3·1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본문학(신문) 작품 리스트

작가 이름	작품명	초출/수록 단행본
나카니시 이노스케	「不逞鮮人」(불령선인)	『改造』 1922. 9
	「汝等の背後より」 (너희들의 등 뒤에서)	改造社, 1923
히라바야시 다이코	「森の中」(숲속)	『新潮』 1929. 4
	「朝鮮人」(조선인)	『文學時大』 1929. 10
나카지마 아쓰시	「巡查のある風景：一九二三年の一つのスケッチ」(순사가 있는 풍경：1923년의 스케치 하나)	『校友會雜誌』 322, 第一高等學校, 1929. 6
유야사 가쓰에	「カンナニ」(간나니)	『文学評論』 1935. 4
가지야마 도시유키	『李朝殘影』(이조잔영)	文藝春秋新社, 1963
스미 게이코	『朝鮮の女』(조선 여자)	サイマル出版会, 1972

※이 글에서 주로 다룰 소설은 굵은 글꼴로 표시했다.

야시의 작품은 엄밀히 말하자면 3.1운동보다는 간토대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 해도 히라바야시의 시선이 3.1운동과 이어져 있는 만큼 분석 대상 작품에 넣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3.1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 3.1운동을 직접적으로 그린 작품은 「불령선인」과 「간나니」, 『이조잔영』, 『조선 여자』이다. 『너희들의 등 뒤에서』, 「숲속」, 「조선인」, 「순사가 있는 풍경：1923년의 스케치 하나」는 3.1운동 이후 이어진 독립운동과 조선인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물론 〈표 1〉이 3.1운동과 관련된 모든 작품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 정병호는 『조선 및 만주』(朝鮮及滿州)와 『조선공론』(朝鮮公論)에 실린 조선 이주 정착 일본인들의 3.1운동과 관련된 일본어소설을 분석하고 있다.<sup>8</sup> 이와 관련된 작품은 내선(內鮮) 연애를 모티프로 해서 “조선민족의 민족의식 고양을 극복할 수 있는”<sup>9</sup> 방향성을 지닌 것으로 일본

8 정병호, 「3.1 독립운동에 대한 재조일본인 미디어의 변용과 1919년의 일본어 문학」, 『일본연구』 39,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9 정병호, 「3.1 독립운동에 대한 재조일본인 미디어의 변용과 1919년의 일본어 문학」, 231쪽.

인의 ‘피포위 공포’나 ‘죄의식’을 달콤한 내선 연애로 덮고 있는 소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세리카와 데쓰요의 연구에 따르면 위 작품 외에도 모리야마 게이(森山啓, 1904~1991)의 소설 「불」(火)(『戦旗』, 1928. 5)과 마키무라 고우(牧村浩, 1912~1938)의 「간도 빨치산의 노래」(間島パルチザンの歌)(『プロレタリア文学』, 1932. 4)<sup>10</sup> 등이 3.1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sup>11</sup> 이 외에도 와타나베 가즈타미(渡邊一民)가 밝히고 있듯이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다룬 작품으로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의 「진재 위문」(震災見舞い)(『新興』1923. 9. 창간호)도 있다. 이 또한 큰 맥락에서는 3.1운동으로 야기된 일본인의 ‘피포위 공포’와 관련된 소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3.1운동과 관련된 일본문학 작품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선행연구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지 않다. 3.1운동과 관련된 일본문학 작품이 적은 이유는 일본인들의 인식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가시와기 기엔(柏木義円),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그리고 조선 재주 일본 기독교회의 일부 목사를 포함해 소수의 3.1운동을 이해한 사람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일본인은 3.1운동을 ‘소요사건’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인에 대한 배외주의적인 적개심을 더 깊게 지니게 됐다.<sup>12</sup> (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인은 일부 지식인을 제외하면 3.1운

10 이 시에 대해서는 곽형덕, 「동아시아 프로문학 연구의 현재를 묻다: 캐런 손버, 사무엘 페리, 아나카 켈버의 연구서를 중심으로」(『사이』 1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에서 다뤘다.

11 세리카와 데쓰요, 「3.1독립운동과 일본문학의 관련 양상」(이태진·사사가와 노리카쓰 공편, 『3.1운동 100주년 기념출판: 3.1독립만세운동과 식민지배체제』, 지식산업사, 2019, 355~413쪽 참조). 다만 이 글은 3.1운동을 그린 모든 일본문학 작품을 열거하거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기보다는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이 <표 1>에 열거한 작품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에 모든 작품을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12 芹川哲世, 「日・韓近代文学に現われた3.1独立運動」, 笹川紀勝, 金勝一, 内藤光博 編, 『日本の植民地支配の実態と過去の清算: 東アジアの平和と共生に向けて』, 風行社, 2010, 85쪽.

동이 지나는 세계사적 의의와 독립을 향한 조선인의 열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선인의 독립요구에 오히려 “배외주의적 적개심”을 품었다. 요시노 사쿠조 또한 3.1운동을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를 비판하고 있을 뿐, “조선의 독립과 독립운동을 ‘사실적’ 또는 ‘정치적’”<sup>13</sup>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했다. 이른바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조선인의 독립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했다기보다는 ‘소요사건’의 원인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탄압과 민족차별에 있다고 보고 치우 개선을 내세웠다. 그렇기에 3.1운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소설도 세계사적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는 흐름 속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조선인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 대신 소설에 담긴 것은 일본인의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특히 「불령선인」과 「간나니」, 『이조잔영』, 『조선 여자』는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죽은 조선인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다음 장에서는 「불령선인」을, 그다음 장에서는 「숲속」, 「조선인」, 「순사가 있는 풍경: 1923년의 스케치 하나」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

### 3. 「불령선인」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의 행방

3.1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그린 일본문학 작품(산문)은 작가의 조선 거주 체험과 밀접히 이어져 있다. 특히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유아사 가쓰에, 나카지마 아쓰시의 작품은 이들 작가의 조선 체험을 한 축으로 해서 그동안 독해돼 왔다. 그런 만큼 이 글에서는 이들 작가의 조선 체험을 다시 다루지는 않고 작품에 집중하고자 한다. 조선 체험이 없었다면 세 작가가 3.1운동과 관

13 한상일, 『제국의 시선: 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 새물결, 2004, 326쪽.

14 마키무라 고우가 쓴 시 「간도 빨치산의 노래」만이 조선인의 독립 열망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선언적인 시와는 달리 소설은 구체성이 없으면 작품화할 수 없기에 당시 일본의 주류적 인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범위에서 작품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련된 작품을 쓰지 못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체험이 곧 작품 그 자체는 아니다. 조선 체험은 작품을 형상화한 뿌리에 해당하지만 텍스트는 그 뿌리를 타고 자라난 나무와 같다. 많은 가지와 잎사귀로 구성된 나무, 즉 텍스트는 작가 개인의 의식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간 일본인의 집단 기억과 감성, 그리고 조선 거주 체험을 지닌 일본인들의 조선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3.1운동은 피식민자인 조선인이 식민자 일본인의 지배에 항거해 일어난 운동이다. 그렇기에 이는 평화적이든 그렇지 않든 조선인 군중/대중/집단의 단체 행동을 전제로 한다. 한 달 넘게 한반도 곳곳에서 이어진 3.1운동은 “집회수 1,548회, 참가인원 204만 6,488명,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수 1만 5,849명”<sup>15</sup>으로 추산된다. 200만 이상의 참가자수가 말해주듯 3.1운동 참가자 비율은 당시 인구(1,700만 명 정도)<sup>16</sup>의 10%가 넘는다. 그만큼 조선 이주 정착 일본인은 3.1운동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공포를 느끼며 생활했으리라는 것은 쉬이 추측할 수 있다. 기유정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조선 이주 정착 일본인은 3.1운동 이후 “수백 명의 집단을 이루어 대응”해오는 조선인에게서 “수의 문제”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sup>17</sup> 기유정의 논문은 3.1운동 이후 식민 권력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경성의 한복판에서 일본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해 조선인들이 일시에 ‘군중’을 이뤄 투석전을 벌이는 등의 놀라운 일화를 소개한 후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무엇보다 사건의 내용과 발생 이유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수 싸움 자체가 현장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수의 논리가 식민공간의 다른 지배적 논리들(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식자와 무식자, 총이나 검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개별자 간의 위계적 차이)의 위계 구도를 전복하고 수의 논리로 상황을 지배하게

15 朴慶植, 『朝鮮三·一獨立運動』, 高麗書林, 1987, 105쪽.

16 文浩一, 「植民地期朝鮮の南北人口比: 朝鮮総督府国勢調査資料の分割フォーマット」, 『Discussion Paper Series』 146, 一橋大学, 2006, 24쪽.

17 기유정, 「식민지군중의 “길거리 정치”와 식민자의 공포(1920~1929)」,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19, 도시사학회, 2018, 91~92쪽.

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중요한 것은 다수자와 소수자의 단순한 차이이다. 군중의 수, 그것은 곧바로 공포이다.<sup>18</sup>

3.1운동 이후에도 조선인의 ‘군중’ 행동이 계속되면서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공포를 느꼈음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기유정은 이러한 “군중의 정치역량”은 반드시 “식민권력의 폭압을 고발하”는 전복성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지배질서의 폭력성과 이념논리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도 있는 반동성”<sup>19</sup>을 보이기도 했다고 결론짓는다. 3.1운동 이후 ‘군중’의 폭력적 행동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된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를 특정할 수 없지만, 1920년 경성에서는 수의 정치가 일본인에게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안긴 것만은 분명하다.

일본인이 3.1운동으로 느꼈을 ‘피포위 공포’와 ‘죄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작품은 역시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불령선인」이다. 3.1운동 이후 굳어진 ‘타자/타민족’에 대한 공포와 멸시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불령선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나카니시의 창작의도를 읽을 수 있다. 3.1운동 이후 대다수의 일본 미디어가 일본 국민에게 “조선인에 대한 멸시와 그와 반대 지점의 공포심을 더욱 침투시키는 역할을 했”<sup>20</sup>던 상황에서 조선을 깊이 이해했던 나카니시는 ‘불령선인’이라는 용어를 애써 써서 당시 만연해있던 조선인 차별 문제에 파문을 일으켰다. 나카니시는 무비판적으로 통용되는 ‘불령선인’이라는 용어에 ‘노이즈’를 발생시켰다.

「불령선인」은 주인공 우스이 에이사쿠(碓井榮策)가 친구 흥희계의 소개로 통역을 데리고 조선 서북부의 불령선인 소굴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에이사쿠가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딸이 3.1운동 때 살해당하자 경성 생활

18 기유정, 「식민지군중의 “길거리 정치”와 식민자의 공포(1920~1929)」, 115쪽.

19 기유정, 「식민지군중의 “길거리 정치”와 식민자의 공포(1920~1929)」, 116쪽.

20 松尾尊兌, 「解説」, 吉野作造, 『中国·朝鮮論』, 平凡社, 1970, 367쪽. 안드레·헤이그, 「中西伊之助と大正期日本の「不逞鮮人」へのまなざし」,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2권 3호, 2011. 1, 87쪽에서 재인용.

을 정리하고 시골로 돌아온 배일선인단(排日鮮人團)의 ‘수괴’로 소설 시작 부분에 그려진다. 그 ‘수괴’의 딸과 흥희계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소설의 시작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령선인」은 탐정소설의 형식으로 짜여있다. 우스이가 ‘수괴’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조선 서북부 마을에서 느끼는 감정은 죄의식과 불안, 그리고 공포와 다름없다. 특히 수괴의 집으로 가려면 배로 강을 건너야 하는데 뱃사공이 우스이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자 배에 태워주지 않는다. 우스이는 “지금 이 한 사오 년 전이었다면 그 배를 빼앗아서라도 건넌을 것”<sup>21</sup>이라고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수영해서 강을 건너간다. 강을 건너 수괴가 사는 마을로 가며 가마쿠라 시대를 연상하던 우스이는 조선인과 조우하고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기이한 복장을 한 에이사쿠에게 허영게 빛나는 칼날의 번뜩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했다. 좁다란 길을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마주치면 에이사쿠는 가만히 몸을 돌려 피하듯 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외치면 우르르 주위의 집들에서 손에 무기를 든 마을 사람들이, 혼자밖에 없는 자신을 가운데 두고 열 겹, 스무 겹으로 포위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졌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지금까지 몇 번인가 행해졌던 그 무시무시한 학살이 행해지는 것이 아닐까 여겨졌다. (30쪽)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선인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은 직접적으로는 3.1운동 때 벌어진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압도적 다수인 조선인이 자신을 둘러쌀지도 모른다는 ‘피포위 공포’를 우스이가 느낀 배경에는 3.1운동 당시 일본인의 조선인 탄압이 있다. 더구나 우스이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놓인 상황이기에 공포심이 극도로 배가돼 독자에게 전달되는 묘사이다. 우스이가 느끼는 공포심은 3.1운

21 나카니시 이노스케, 박현선 옮김, 『불령선인 & 너희들의 등 뒤에서』, 현인, 2017, 28쪽. 이하 「불령선인」의 인용은 번역서를 중심으로 하며 페이지만 표시한다. 다만 초출이나 개작 『北鮮の一夜』에서 직접 번역해 인용할 때는 이를 밝히겠다.

동 당시 일본 관현의 조선인 탄압과 살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피해망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1910년에서 192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은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이후의 시대로 일본 제국의 내부와 외부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사회적 동요”<sup>22</sup>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스이가 느낀 ‘피포위 공포’는 작품이 발표된 1922년 시점에서 보자면 3.1운동만이 아니라 러시아혁명과도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불령선인』에서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은 배일선인단 ‘수괴’의 집 주인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증언된다. 주인은 딸의 상의에 묻은 핏자국을 우스이에게 보여주며 일본인이 자신의 딸을 군도로 어떻게 죽였는지를 재현한다. 번역본에서는 제대로 재현돼 있지 않지만 주인의 일본어는 조선인 특유의 발음을 그대로 재현한 ‘불완전’한 발음으로 가득하다. 그렇기에 그걸 듣는 우스이나, 읽는 일본 독자들에게 더 생생한 공포를 불러온다.<sup>23</sup>

『まだあります。---今の傷は、最初です』…『……………またこらんない°この背中にあります。これが、二度目ですよ』(『改造』1922. 9, 33~34쪽, 강조점은 원문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지금 이 상처는 처음에 생긴 겁니다。”…“……………아디 더 있으니 뻘세요. 여기 등에 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처음’ ‘아디’ 등은 일본어 원문의 강조점(조선인의 ‘불완전한’ 발음)을 참고해 한국어로 비슷하게 재현해봤다. 피식민자가 식민자의 언어를 ‘모방’해 자신의 고통을 말할 때, 그것은 듣는 이(식민자)로 하여금 ‘죄의식’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타자(他者)가 자신의 언어가 아닌 식민자의 언어로 말하는 순간 그/그녀가 뒤틀린 발음으로 발화할 수밖에

22 앤드레·헤이그, 「中西伊之助と大正期日本の「不逞鮮人」へのまなざし」,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2 권 3호, 2011, 81쪽.

23 나카니시 이노스케 소설의 인물과 언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渡辺直紀의 「中西伊之助の朝鮮関連の小説について: 特に表記言語と人物の遠近化の關係を中心に」(『일본학』 22,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3)가 있다.

없는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식민자의 위치 또한 드러낸다. 그렇기에 이런 텍스트에서는 민족의 특성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조선인을 ‘불령선인’이라 호명하는 일본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 텍스트이기에 「불령선인」은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3.1운동의 전개와 발단 과정이 52행이나 삭제돼 공개됐다.

“모두가 34×××××××인데, 딸도 함께 모였습니다. ××××××.”

(이하 52행 결) (번역본 53쪽)

박현선이 번역한 『불령선인 & 너희들의 등 뒤에서』에도 각주로 이 부분이 재현돼 있다. 다만 52행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다른 논문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라 현재 52행 전체를 한국어 독자는 읽을 수 없다. 복자(伏字)와 삭제된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나카니시 이노스케가 일본이 패전한 이후 이 부분을 다시 썼기 때문이다. 나카니시는 그러면서 작품 제목을 「불령선인」에서 「북선에서의 하룻밤」<sup>24</sup>으로 개작했다.

위 인용 바로 앞에서부터 나카니시가 복원한 부분을 그대로 옮긴다.

“처음에 제 딸은 그 무렵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독립선언서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모두가 함께 모였답니다. 그건 3월 1일이었습니까.”

주인은 자기 딸의 유해라도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흥분이 약간은 가라앉았는지 말을 하면서 약간 편안해진 듯한 모습이였다.

그것은 1919년 3월 1일이였다. 제1차 구주대전 이후 파리에서 열린 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에 의해 ‘민족자결’ 선언이 발표되였다. 모든 민족은 각자 독립된 국가를 가져야 하며 또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국의 건국

24 中西伊之助, 『北鮮の一夜』, 人民戦線社, 1948, 3~82쪽.

정신으로 세계에 선명(宣明)한 것이었다.

인종적 차별대우, 민족적 차별 대우는 인도적 견지에서 보자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계의 모든 인종, 민족은 모두 자주적으로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결정할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선언이다. 이 선언은 인종적 차별에 시달리는 세상의 모든 피압박 민족의 고통을 달래주어 모든 인종으로 하여금 환희하고 희망에 떨쳐 일어나게 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아래 시달리고 있는 조선민족은 이 선언으로 미국이 일본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sup>25</sup> 당시 가장 왕성히 활동했던 천도교, 일본의 폭거에 가득 찬 식민지 정치에 인도적인 동정을 조선민족에게 쏟은 기독교 및 불교, 이렇게 3대 종교단체의 대표자와 독립을 희구하는 지식계급, 학생들은 서로의 기맥(氣脈)을 통해서 천도교의 손병희를 시작으로 33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그건 그해 3월 1일이었다. 경성 시외에는 학생을 선두로 한 군중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거리에서 외치고, 언덕에서 소리칠 뿐 조직적 운동은 아니었기에 일본 관헌과 그들에게 협력하는 일본인 반동단체가 손에 무기를 휘두르며 무기가 없는 학생들을 살육했다. 이 소요 속에서 주인의 사랑하는 딸도 희생됐다.

에이사쿠도 알고 있는 사건이었으나 주인은 딸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해줬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들려주는 것은 자신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억을 말하는 것으로 영원히 아물지 않는 고뇌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질리지도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해 들려주는 주인의 마음을 느끼자 에이사쿠의 온몸이 그 감상으로 쭈셔오기 시작했다.

위의 다소 긴 인용/번역이 나카니시가 1948년에 복원한 부분이다. 대부분이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당시 삭제된 이유를 알 수 있다. 3.1운동

25 “그것은”에서부터 “품게 되었다”까지는 『불령선인 & 너희들의 등 뒤에서』에 실린 번역본을 참조해 약간 수정했다. 이후는 『北鮮の一夜』(54~55쪽)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다.

의 전개 과정만이 아니라 일본인 관헌과 반동 단체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조선인을 ‘살육’했음을 적고 있다. 현재 역사학계에서 상세하게 밝힌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서술이다. 하지만 이렇게 상세하고 직접적으로 3.1운동을 다룬 소설은 없었다는 점에서 「불령선인」의 독보적인 가치가 인정된다.

한편 「불령선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인의 ‘죄의식’에 관한 것이다. 알베르 뎀미는 타민족에 대한 죄악감이 인종차별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윤리성을 결여한 죄악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윤리성을 결여한 식민지 지배는 죄악감을 낳고 그것이 공포로 이어져 타민족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자민족의 ‘죄’를 느끼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죄의식(무의식)→공포→폭력(살육)’으로 이어지는 차별과 폭력의 연쇄와는 다르다. 「불령선인」의 결말에서 우스이는 한 밤중에 주인이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면 두려움에 떨고, 심지어 친구 흥희계가 음모를 꾸몄다고 망상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주인은 에이사쿠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우스이는 자신의 망상을 비웃으며 감격에 휩싸인다. 그리고 소설은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이 저야 할 죄이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이 부분은 주인공 우스이만이 아니라 작가의 독백처럼 느껴지게 구성돼 있다. 이 소설은 ‘일본인의 죄’를 전경화하면서 두 민족의 대립과 갈등/살육의 책임 소재를 밝히려 한다. 1922년 나카니시는 ‘죄의식(무의식)→공포→폭력(살육)’의 연쇄가 아니라, ‘죄의식(참회)→평화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로(狹路)를 텍스트에 새기려 했다. 일본인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자의 위치로 자신을 옮겨놓고 사유함으로써 갈등이 아닌 평화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애써 몸을 넣으려 했다. 비록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은 나카니시의 바람과는 달리 ‘죄의식(무의식)→공포→폭력(살육)’으로 이어졌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일본문학사에서 3.1운동만

26 알베르·뎀미, 菊地昌実·白井成雄 訳, 『人種差別』 참조.

이 아니라 타민족(조선인)에 대한 당시로서는 최대한의 이해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 4. 공포의 전이와 살육: 3.1운동에서 간토대지진까지

3.1운동으로 현재화된 일본인의 죄의식/무의식은 조선인에 대한 공포로 바뀌어 살육으로 이어졌다. ‘피포위 공포’라는 억눌림이 ‘조선인 학살’로 폭발하게 된 과정은 타자/타민족에 대한 공포를 조종해 재난/혼돈/무질서 상태에 있는 일본인 군중을 통제하려 했던 지배계층/미디어의 ‘기획’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1919년 3월 1일로부터 불과 5년도 되지 않아 간토대지진(1923년 9월 1일)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조선인학살은 유언비어로부터 시작됐다.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불령선인의 폭동이 일어났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나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타민족/사회주의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려는 지배층과 대중의 조선인 인식이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조차도 유언비어를 일정 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선량한 시민이다. 하지만 내 소견에 의하면 기쿠치 간(菊池寛)은 그 자격이 빈약하다.

… 기쿠치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 그러는 중에 큰 화재의 원인은 ○○○○○○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자 기쿠치 간이 눈썹을 위로 올리며 “그건 거짓말이야, 자네.” 하고 일갈했다. … 하지만 다시 한 번, 그래도 ○○○○은 불세비키의 앞잡이라고 하던데 하고 말했다.

기쿠치는 이번에도 눈썹을 위로 올리며 “그건 거짓말이야, 자네.” 하고 꾸짖었다. … 다시 내 소견을 밝히자면 선량한 시민은 불세비키와 ○○○○ 사이의 음모가 존재함을 믿고 있다. … 선량한 시민인 동시에 용감한 자경단의 일원인

나는 기쿠치를 해석해할 수밖에 없다.<sup>27</sup>

아쿠타가와와는 조소와 자조, 그리고 위트 넘치는 글을 썼던 작가이기애 이 기록을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자경단 활동을 했던 것과 유언비어나 조선인과 불세비키 공모설을 일정 부분 수용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sup>28</sup> 한편 기쿠치 간의 전집을 보면 유언비어를 부정하던 그 또한 자경단 활동을 했음이 확인된다. 당시 자경단 활동을 한 것이 그대로 조선인 학살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도 미증유의 재난 상황에서 저명한 작가들조차 당시 유언비어에 흔들리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자경단 활동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9</sup>

3.1운동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까지의 상황이 모두 그려져 있는 작품은 나카지마 아쓰시의 「순사가 있는 풍경: 1923년의 스케치 하나」이다.<sup>30</sup> 나카지마 아쓰시가 스물한 살에 쓴 짧은 소설이지만 영화의 플래시백 기법을 구사하며 짧은 묘사 속에 경성의 삭막한 풍경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특히 짧고 강렬한 이야기와 묘사가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영화/연극의 한 장면을 글로 풀어놓은 것 같다. 강렬한 풍경 묘사와 인물의 심리 묘사는 조선인 순사 조교영의 흔들림과 고뇌를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조교영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수행하는 순사이지만 3.1운동 이후의 식민지 경성을 응시하며 협력과 저항 사이에서 흔들린다. 경성에

27 芥川龍之介, 「大正十二年九月一日の大地震に際して」, 『芥川龍之介全集 7』, 角川書店, 1978, 176~177쪽.

28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아쿠타가와와의 당시 인식의 일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친다.

29 기쿠치 간의 자경단 활동 및 일본 작가들의 간토대지진 행적에 대해서는 尾玉千尋, 「關東大震災と文豪: 成蹊大学図書館の展示から」(『成蹊国文』 47, 成蹊大学文学部日本文学科, 2014, 78~79쪽)를 참조했다.

30 서동주, 「지배의 역설 · 광기의 식민지 - 나카지마 아쓰시 「순사가 있는 풍경」에서의 제국 · 천황 · 타자」, 『일본학연구』 32,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 참조. 서동주의 이 논문은 「순사가 있는 풍경」이 '동화주의의 파탄'과 '지배의 역설'을 드러낸 작품임을 주인공 조교영과 김동련의 비극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23년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이 1929년에 나오게 된 배경을 "제국의 본국과 식민지에서 이중적으로 작용"(81쪽)된 것과 연결지며 동화주의의 파탄이 모순적인 식민지 인식에 있음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순사가 있는 풍경」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본인의 조선인 차별은 전차에서만 아니라 경성부 부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조선인 후보를 향해서도 가차 없이 이뤄진다. 조교영은 그런 조선인의 가련한 처지를 생각하며 “조선이라는 민족을 생각해보았다. 자신이라는 존재도 생각해보았다. … 그러나 그 숨 막히는 압박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규명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이 두려웠다. 스스로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 두려웠다. 스스로 자신을 자극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럼 왜 두려운가. 왜인가.”<sup>31</sup> 하고 자신에게 묻는다. 직접적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조교영의 흔들림은 3.1운동 이후 고양된 민족 의식과 이어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비참하기에 조교영은 순사의 지위를 버리면서까지 식민지 권력에 저항하지는 못한다. 그의 고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1923년. 겨울은 더럽게 얼어붙어 있었다.

모든 것이 더러웠다. 그리고 더러운 채로 얼어붙었다. 특히 S문(서대문) 밖 골목에서는 더욱 심했다.

중국인의 아편과 마늘 냄새, 조선인의 싸구려 담배와 고추가 섞인 냄새, 으깨진 빈대와 이의 사체 냄새, 길거리에 버려진 돼지 내장과 고양이 가죽 냄새, 그것들이 그 냄새를 보존한 채 길 위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sup>32</sup>

온갖 냄새가 진동하는 경성의 더럽게 얼어붙은 1923년 겨울은, 3.1운동이 간토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귀결된 직후이다. 「순사가 있는 풍경: 1923년의 스케치 하나」 속 1923년의 경성은 3.1운동으로 독립의식이 고양된 장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더러운 채로 얼어붙어” 있는 절망적인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다. 변화의 열망이 넘치던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다시 얼어붙어 있는 경성의 1923년은 절망적이다.

31 나카지마 아쓰시, 김영식 옮김, 『나카지마 아쓰시 단편선 산월기』, 문예출판사, 2017, 236~237쪽.

32 나카지마 아쓰시, 김영식 옮김, 『나카지마 아쓰시 단편선 산월기』, 240쪽.

출다기보다는 아팠다. 몸 안의 심장 외에는 모두 동사해버린 느낌이었다. 길가에는 버려진 생선의 붉은 아가미가 흐트러져 있고, 응달에 쌓인 눈 위에는 비릿한 돼지 머리가 물어뜯긴 채 흩어져 있다. 집안의 사람들은 도랑에서 올라오는 가스 같은, 부추와 마늘로 찌은 공기를 쇠약한 폐로 호흡하며 간신히 살아갔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다.<sup>33</sup>

절망으로 가득 찬 경성 묘사는 이 소설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팔뚝을 걷어 주삿바늘”을 꽂아 현실을 잊으려 하는 등 비극과 절망, 그리고 망각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 이는 3.1운동으로 맞이한 해방감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절망적인 조선의 모습이다. 나카지마 아쓰시의 작품 속 경성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작품 속 조선 서북부와는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다.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의 여운이 남아있는 조선 서북부와 달리 간토대지진 이후 총독부가 다시 조선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암울한 경성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카니시의 작품에는 제국(일본인)과 식민지(조선인) 사이의 선명한 대립 구도가 드러나 있는 반면, 나카지마의 작품에는 제국 신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꺼림칙함을 느끼는 순사 조교영의 고뇌가 전면화돼 있다. 나카지마는 나카니시와는 달리 일본인의 윤리와 죄의식을 되물은 것이 아니라, 조선인 순사의 고뇌를 내세워 역으로 조선의 비참한 일상을 드러내 식민자의 잔인함과 민족차별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조교영은 순사로 식민지 치안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에 일본에 대항하는 조선인을 탄압해야 한다. 조교영이 조선총독을 암살하려 한 ‘폭한’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은 그런 의미에서 인상적이다. 조교영은 총독을 총으로 살해하려 한 ‘폭한’을 잡은 후 그의 강렬한 눈빛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폭한’이 전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연민의 조소를 지으며 조교영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잡힌 자는 누구인가’라고 말하

33 나카지마 아쓰시, 김영식 옮김, 『나카지마 아쓰시 단편선 산월기』, 247쪽.

고 있는 듯한 ‘폭한’의 눈빛은 순사인 조교영의 죄악감을 극한으로 몰아붙인다. 이런 조교영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은 나카지마 아쓰시이고 또한 일본어 독자들이다.

이 소설에는 조교영만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매음부’가 된 김동련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김동련의 비극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깊이 연관돼 있다.

매음부 김동련의 방에서는 온돌 장관 위에 칸 피뢰죄한 이불 밑에 발을 집어넣고, 얼굴이 흰 직인(職人) 풍의 남자가 말하고 있었다.

“근데 왜 죽었지?”

“이번 가을에. 정말 느닷없이.”

“뭘지? 병인가?”

“병 같은 게 아니고, 지진이예요. 지진으로 느닷없이 죽었어요.”

남자는 손을 뺀어 술병을 들고 꿀꺽 한 모금 마셨다.

“그럼 뭘지. 남편은 그때 일본에 있었나?”

“여름에. 아마 장사 일이 좀 있어서 친구와 함께, 그것도 곧 돌아온다고 동경으로 갔어요. 그러자 곧 그게 터졌던 거죠. 그러곤 돌아오지 않았죠.”

남자는 움찔 눈을 올려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자 잠시의 침묵 후, 그는 돌연 매섭게 말했다.

“어이,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군.”

“에? 뭘?”

“자네 남편은 필시…… 가련하게도.”<sup>34</sup>

김동련은 남편이 학살당한 사실을 남자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후 그 사실을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다가 순사에게 붙잡혀 간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조교영은 조선인들이 은밀히 촛불 켜진 방에 모여서 ‘독립운동’을

34 나카지마 아쓰시, 김영식 옮김, 『나카지마 아쓰시 단편선 산월기』, 245~246쪽.

결의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정처없이 걷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식산은행 앞에서 지게꾼들의 비참한 모습(현실)을 직시하고는 “너희는, 너희는. 이 반도는…… 이 민족은…….”이라고 내뱉고 소설은 끝난다. 「불령선인」의 끝에서 우스이 에이사쿠는 민족의 죄를 자각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조선인 순사 조교영이 민족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끝없이 고뇌한다. 조선인 순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리얼리티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인 작가 나카지마 아쓰시가 조선인 순사를 내세워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을 쓰게 된 동인으로 역시 3.1운동과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두 사건이 없었다면 조선인 순사의 흔들림은 현실적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졌을 것이다.

한편 3.1운동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인의 조선인 ‘공포’와 ‘학살’을 누구보다 선명히 드러낸 작가는 다름 아닌 히라바야시 다이코이다. 히라바야시는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전화교환원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나키즘 그룹에 접근해 활동하다 간토대지진 때 검거됐다. 석방된 이후 중국 대륙과 조선을 방랑했고 그 체험을 소설로 썼다.<sup>35</sup> 히라바야시는 일본인 사회주의자와 조선인 사이의 연대를 바탕으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조선인」과 「숲속」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 입욕 거절”

만세 소동 이래 몇 년 동안 조선인에 대한 공포로 인해 어디에 가더라도 이런 불인 종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백색 테러로 유명해진 장군에서 승진한 총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와 ×××××가 노골적이 됐다. 하지만 평등주의자인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뜨끔뜨끔한 은단 정도의 자극 정도일 뿐이다. ××와 ××와 ×× 등이 저 멀리 압록강의 얼음처럼 전(全)××××의 머리 위에 커다란 결빙을 온통 둘러칠 때야말로 그들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그

35 阿部浪子 編, 「平林たい子年譜」, 『平林たい子全集12』, 潮出版社, 1979.

렇게 되면 그런 곤란함이야말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sup>36</sup>

「조선인」에는 ‘내지’의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한 공포”로 “조선인 입욕 거절” 등을 목욕탕 등에 내걸지 못했던 장면이 나온다. 3.1운동의 여파가 조선만이 아니라 조선 외부로까지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숲속」은 조선인 학살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자 학살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그 옆에서 자경단은 시퍼런 죽창을 잡고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회전의자처럼 자신의 방향으로 돌렸다.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라고 해봐.”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 지나가던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턱을 움직였다.

“더 해봐. 아니야 됐어. ‘젠라이’(元來)라고 해봐. 좋아. 그럼 이번엔 ‘센세이’(先生)라고 말해봐. 좋아.”

센코(仙子)가 그대로 지나가려 하자,

“기다려! 뭐 팔러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냐고. 천황폐하 탄신일을 말해봐?”

센코는 그때 강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피가 한곳에 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몇 미터 정도 떨어진 다리 옆에서 센코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질린 상태로 자신을 사회주의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 그런 노력은 그녀가 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다.<sup>37</sup>

간토대지진 당시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일본어 발음을 시켜서 ‘일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내 생과사를 결정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숲

36 平林たい子, 「朝鮮人」, 『平林たい子全集1』, 潮出版社, 1979, 277쪽.

37 平林たい子, 「森の中」, 『平林たい子全集1』, 潮出版社, 1979, 254쪽. 이하 「숲속」 인용은 다수인 만큼 『平林たい子全集1』를 저본으로 해서 쪽수만 표기한다.

속」은 그 어떤 소설보다도 이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일본어 발음만이 아니라 ‘천황폐하 탄신일’을 몰아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색출해낸 간토 대지진 당시의 상황은, 1920년대 당시 ‘일본인’이라는 우위성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선명히 드러낸다. 생과 사를 가르는 ‘스핑크스의 질문’이 조선인과 오키나와인, 그리고 사회주의자를 향해 던져진 1923년 가을 도쿄 거리는, 혁명과 운동의 칼끝이 구체제로 향해 있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혁명의 에너지를 타민족 학살로 해소하려 했던 구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일본과 일본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sup>38</sup> 동시에 1923년은 3.1운동 이후 조선인이 소리 높여 외쳤던 조선인의 자주와 독립이 조선인 학살로 이어지는 끔찍한 비극의 시공간이기도 했다.

한편 아쿠타가와가 “○○○○은 볼셰비키의 앞잡이”라고 ‘불령선인’을 정의했던 부분은 「숲속」에도 유사한 형태로 등장한다.

“조선인 한 무리가 이타바시까지 밀어닥쳤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뛰어온 자가 있었다. …

“조선인을 지휘하고 있는 놈들이 바로 사회주의자라고 하더구만.” …

“저 언덕 아래에서 어젯밤 12시 무렵에 누군가가 줄로 묶은 조선인 여자를 끌고 왔어. 글썄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하더군. 그런데 등불로 비춰보니 말이지 그 여자가 임신해 있지 않나. 그런데 자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데도 내가 막을 수조차 없었다네.”(258쪽)

국적불명으로 나와 있는 ‘사회주의자’는 ‘불령선인’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다. 사회주의자는 우물에 독을 타고, 선량한 ‘일본인’ 마을을 습격하고 불을 지르는 ‘불령선인’을 지휘하고 있는 셈이 되니 대혼란 속에서 사회주의자 또한 헌병대나 자경단에게 잡히면 조선인과 같은 운명을 맞

38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권보드래의 책은 3.1운동을 전 세계적 혁명의 흐름에서 파악하고 있다. 책 표지에 쓰인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이라는 문구는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피압박 민족의 희망을 잘 드러낸다.

이하기 십상이었다.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가 살해당한 아마카스사건(甘粕事件, 1923. 9. 16.)은 이를 보여준다.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인 군중의 조선인을 향한 분노는 「숲속」의 다음 장면에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공포심에 떨고 있던 군중은 기세가 오르는 개미들처럼 일시에 몰려왔다. 그러자 조선인은 벌떡 일어났다.

“두고 보자!” (조선어로-옴긴이 주)

조선인은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일본인(원문 그대로-옴긴이 주)에게는 “퐁퐁퐁퐁”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두고 보자.”

다시 말하더니 닥쳐오는 남자들에게 자세를 취했다. 말은 역시 튕겨져 나가서 벌레가 내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한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조선인의 몸을 갑자기 커다란 돌로 쳤다. 조선인은 쓰러진 채로 개구리처럼 얼굴을 만지더니 다가왔다. 그러자 다른 사내가 다시 돌을 들고서 조선인의 머리를 쳤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등신아.”

그의 조선어는 이제 탄력을 잃고 장구벌레처럼 입에서 날아갔다.

“뭉야 아직도 뭉야라고 말하고 있어!”

바닥에 떨어진 돌을 누군가 다시 들어서 쓰러진 조선인의 위로 내던졌다. (262쪽)

1923년 9월 도쿄의 거리에서 일본인 군중에게 쫓겨 생사의 고비에 직면한 조선인. “두고 보자”(覚えている!)라고 조선어로 외치며 도망치는 조선인의 목소리는 벌레가 내는 것과 같은 “퐁퐁퐁퐁”으로밖에 일본인에게 들리지 않는다. 군중에게 돌맹이를 얻어맞은 조선인은 개구리로, 그리고 탄력을 잃은 조선어는 ‘장구벌레’처럼 붙잡힌 조선인의 입에서 날아간다. 이 소설의 화자는 일본인 군중에게 붙잡힌 누군가를 ‘조선인’이라고 써서 그를 죽인 ‘일본인’의 존재를 선명히 텍스트에 부각시킨다. 전전의 일본 소설 속에 일본인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오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학살자로서의 일본인 군중의 모습을 이토록 강렬하게 텍스트에 등장시킨 소설은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숲속」은 조선인이 학살된 후 사회주의자들이 숲속으로 끌려가서 학살 되는 장면에서 끝난다.

숲속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넓은 도랑이 있었다. ... 사격하는 소리가 파팍 파팍 하고 콩을 벽에 던졌을 때처럼 연속해서 들리더니 갑자기 멈췄다. ...

“앞으로 나와.”

정신을 차려보니 병졸 한 부대가 총검처럼 정연히 늘어서 있었다. 두 명의 병사가 한 명을 붙잡았다. ... 쓰러지면서 숲이 짓는 소리를 들었다. (267쪽)

「숲속」은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사회주의자 학살을 겹쳐 놓은 소설이다. 3.1운동 이후 일본인의 죄의식(무의식)이 공포로 변해 조선인 살육으로 나아간 궤적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던 독립 요구와 사회주의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사회주의자 또한 대진제 와중에 ‘공포’의 대상이 되어 학살당한 것을 이 소설은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자를 향한 공포와 분노는 “조선인을 지휘하고 있는 놈들이 바로 사회주의자라고 하던데.”라는 성마른 군중의 목소리에도 담겨 있다.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숲속」은 많은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3.1운동과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에 침묵하는 가운데 민족차별과 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담아냈다.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이 ‘계급’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민족’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나카니시 이노스케나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계급만이 아니라 민족차별 문제를 「불령선인」과 「숲속」 등에서 누구보다 예리하게 제기하고 있다.

## 5. 맺음말

3.1운동은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각기 다른 집단 기억을 남겼다. 조선인 청

년에게 그것은 잊지 못할 체험이었다. 비록 일시적이었으나 조선 곳곳에서 ‘만세’를 외치며 일본인을 압도했던 경험이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후의 독립운동은 물론이고 민족의식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청년 세대는 “생의 비애를, 죽음의 공포를 정면에서 상대함으로써 새로운 감성·사상·문학을 개척”<sup>39</sup>해 나갔다. 이들의 문학은 ‘3.1운동 세대의 문학’<sup>40</sup>이라 지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당시의 일본인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 특수로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 저편의 전쟁”<sup>41</sup>이라 불리며 경제 특수를 누릴 수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중에 터진 러시아혁명은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크게 바꿔 놓았다. 러시아혁명이 터지자 일본은 시베리아간섭전쟁에 7만이 넘는 병력을 투입해 ‘쌀 소동’(1918) 등의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게 된다. 조선총독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3.1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느닷없이 일어난 일대 사건이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의 일본인은 ‘불령선인’ 언설로 대표되는 배외주의적 시각을 내면화해 갔다. 그렇기에 일본에서 ‘제1차 세계대전 세대의 문학’이라거나 ‘간토대지진 세대의 문학’이라는 식의 진취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문학이 기록한 3.1운동을 다시 읽는 작업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일본인의 의식과 내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집단 기억은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는 민족 기억의 저수지이기 때문이다.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 모두 일본인과 타민족, 혹은 타자에 대한 인식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일본문학에는 ‘일본인’이나 ‘민족’이라는 대명사/명사가 다른 작품과 달리 현저히 많이 등장한다.

지면 관계상 2장에서 열거한 작가들의 모든 작품을 다루지는 못했으나 일본인의 성찰적 타자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작품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불령선인」과 나카지마 아쓰시의 「순사가 있는 풍경: 1923

39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502쪽.

40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503쪽.

41 가타야마 모리히데, 김석근 역, 『미완의 파시즘』, 가람기획, 2013.

년의 스케치 하나, 그리고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숲속」이다. 세 작가의 작품은 3.1운동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까지의 시기에 일본인의 ‘피포위 공포’와 ‘살육의 기억’을 담고 있다. 특히 「불령선인」과 「순사가 있는 풍경: 1923년의 스케치 하나」는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식민 정책이 야기한 ‘민족의 죄’를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카니시는 일본인 주인공 우스이 에이사쿠를 등장시켜 이를 직접적으로, 나카지마는 조선인 순사와 ‘매음부’를 등장시켜 간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숲속」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사회주의자의 비극을 연결시킨 수작이다.

살육의 기억을 기록하고 민족의 죄를 응시하는 것은 이들이 남긴 문학의 핵심이다. 그것은 동시대 일본인들이 지닌 ‘피포위 공포’가 타민족의 피부에 선명히 남긴 아물지 않는 상처로 이들의 텍스트에 선명히 각인돼 있다. 이는 민족적 일체감을 드러낸 일본문학사와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으며, 동아시아인들의 상처와 고통에 공감하는 텍스트로서 새롭게 독해될 필요가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문학이 남긴 타자의 고통에 응답한 문학을 읽는 의미는 일본과 일본인을 자명한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뒤섞임 속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주체로 바뀌 인식해나가려 했던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